

모든 것이 얹혀 있음을 기억하라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반드시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이들은 욕심과 자만심을 갖고 있다.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인연과 법칙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넓혀 보자. 나라는 존재도 인연과 (因緣果)의 현상 속에 존재한다. 사람과 자연, 자연과 자연, 사람과 사람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얹혀 있다.

이를 불교 용어로 인(因)과 연(緣)의 결합(果)이라고 한다. 인이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조건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인+연=과이다. 씨앗(인)은 흙 안에서 햇빛, 공기, 수분 등 (연)의 영양분을 받아 성장해 꽃으로 피어난다(과)